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부모 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차이와 미디어 제재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예은, 박소민, 백현미*
고려대학교

amen1118@korea.ac.kr, ssom@korea.ac.kr, lotus1225@korea.ac.kr*

"How Parental Smartphone Usage Time affects on children's smartphone use"

Jeon Ye Eun, Park So Min, Baek Hyun Mi*
Korea Univ.

요약

최근 미디어 과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 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행태가 가족 맥락 안에서 어떻게 학습되고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미디어 제재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은 2022년 한국 미디어패널조사에서 수집된 개인과 가구 응답 데이터, 그리고 실제 미디어 이용기록인 다이어리 데이터를 파이썬을 이용하여 통합 후, 총 213 가구(부모 및 자녀 포함하여 총 639명)를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차이가 자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미디어 제재보다 부모의 미디어 이용행위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 교육이 학교나 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부모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기존연구에서 단일 주체로 여겨져 왔던 부와 모를 분리하여, 각각의 미디어 이용행태 차이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가족 내 미디어 행동 모델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미디어 이용과 관리, 교육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I. 서론

최근 미디어 과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1] 미디어 이용과 관리, 교육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이용 사전 관리와 예방 가능성을 주목하였다. 특히, 사회 학습 이론[2]을 기반으로,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미디어 이용제재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미디어 연구는 주로 부모의 대리 응답을 통해 자녀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부모를 단일한 주체로 간주하는[3][4] 한계를 갖는다. 자녀가 부모의 대리 응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5], 부모 개개인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연구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미디어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모 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차이와 그 영향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또한, 가족 내에서 시행되는 미디어 이용 정책, 특히 부모의 미디어 사용 제재가 부모와 자녀 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족 내에서 형성되는 미디어 사용 규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 내 자녀의 미디어 사용, 관리 및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

II. 본론

부와 모는 서로 다른 미디어 이용 주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행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들의

이용행태가 일치하거나 상충되는 경우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모의 총 스마트폰 이용시간(부+모 이용시간) 대비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차이(부-모 이용시간)를 산출하여, 미디어 이용행태의 격차가 부모-자녀 간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 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부모의 중재(parental mediation)는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경험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다양한 관행을 의미한다.[6] 자녀의 미디어 시청 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콘텐츠의 시청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적 중재가 이에 속하는 가운데[7], 본 연구는 미디어 이용 제재와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두 행위의 방향성이 일치할 경우 자녀에게 허용 가능한 행동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가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행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자녀의 스마트폰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2.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디어 제재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분석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2022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세 유형의 설문(개인용, 가구용, 미디어

다이어리)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미디어 다이어리는 응답자의 3 일간 미디어 이용행태를 15 분 간격으로 24 시간 기록하기 때문에 부모-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했다. 연구목적에 따라 세 응답자로 모두 활용하였으며 파이썬(python)을 활용해 부모와 자녀를 통합한 새로운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였다. 2 세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 중, 자녀의 나이가 만 6 세에서 18 세 이하이며, 주중에 미디어 다이어리를 기록한 213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가구는 각각 부모와 자녀 3 명씩, 총 63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분 단위로 집계한 각자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두 사람의 평균 값으로 산출해 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1 의 조절변수로 투입된 부모 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차이는 부모의 전체 스마트폰 이용시간 대비 부모 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차이를 비율로 환산하였다. 이는 0 에서 1 의 값을 가지며, 1 에 가까울수록 두 사람 간 행동의 격차가 커짐을 의미한다. 연구문제 2 의 조절변수인 미디어 제재 여부는 인터넷 및 스마트 기기 이용에 대한 제재 여부를 묻는 항목을 활용하여 두 유형 중 하나라도 제재를 하는 가구는 1, 전혀 제재하지 않는 가구는 0 의 값을 부여하여 더미 코딩을 실시했다. 더불어 가정의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녀의 수와 부모의 외/맞벌이 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블록 1 은 통제변수를, 블록 2 는 독립변수인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조절변수를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블록 3 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항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모든 연속변수를 평균중심화(mean-centering)을 하여 곱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1) 분석 결과,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8, B=0.72, p <.001$). 조절 변수인 부모 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차이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와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71, p=.046, F(5,207) = 22.80, p <.001$). 이는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역할 모델 삼아 자신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차이가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만이 주효과가 나타났으며($\beta=.58, B=0.72, p <.001$), 미디어 제재여부의 주효과 및 스마트폰 이용시간과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5,207) = 21.87, p <.001, R^2=.35$. 이는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행위가 언어적 신호로 구성된 제재보다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예측하는 더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의미한다.

III. 결론

본 연구는 가족 맥락에서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 간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가 부모의 행동 격차, 미디어 제재 행위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계는 부모 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차이에 의해 조절되며 부모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자녀는

부모 간 스마트폰 이용 행위가 일치할 때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행동 일치가 자녀에게 허용 가능한 행동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반면 미디어 제재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녀에게 보여지는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행위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변수임을 뜻한다. 즉 자녀는 쉽게 관찰 가능한 부모의 행동을 따르는 것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미디어 제재 행위가 지속적이며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미디어를 제재하는 행위보다 오히려 행동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혔다. 일상화된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은 자녀가 따라야 할 행동 규칙으로서 작용해 자녀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따르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부모 간 미디어 이용행태 차이를 통해 가정 내 행동의 일치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수 있음을 밝혀내어 자녀의 미디어 사용, 관리 및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유아동 또는 청소년과 같은 특정 나이 그룹에만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6 세부터 18 세에 이르는 다양한 나이 그룹을 포괄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건강하며 책임있는 미디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정에서의 미디어 사용 및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가정 내에서 시작되는 미디어 교육 및 이용관리가 미디어 과용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준다.

참 고 문 헌

- [1] Martuscelli, C., & Goujard, C. (2023, August 16). The EU wants to cure your teen's smartphone addiction. Politico. Retrieved 12/02/23 from <https://www.politico.eu/article/eu-social-media-teens-smartphone-addiction>.
- [2]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1986(23-28).
- [3] Lauricella, A. R., Wartella, E., & Rideout, V. J. (2015). Young children's screen time: The complex role of parent and child facto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6, 11-17.
- [4] Nikken, P., & Schols, M. (2015). How and why parents guide the media use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 3423-3435.
- [5] Austin, E. W. (1993). Exploring the effects of active parental mediation of television conten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7(2), 147-158.
- [6] 안정임(2008). 인터넷 이용 중재유형과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6), 230-266.
- [7] Lee, S. J. (2013). Parental restrictive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Effective for what and for whom?. New media & society, 15(4), 466-481.